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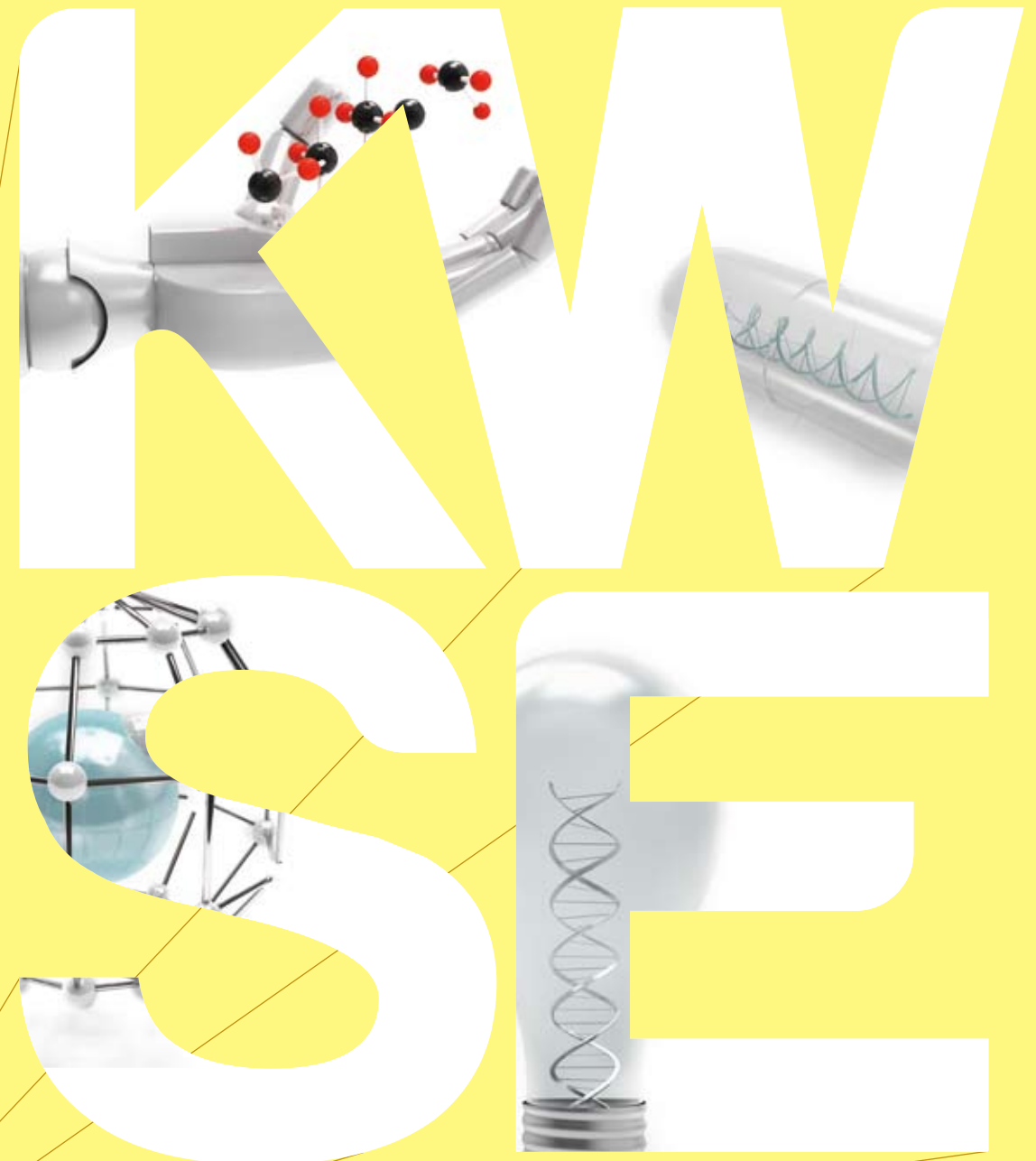


2013년 제2호 통권 57호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10호
Tel. 042-863-8310~2 Fax. 042-863-8313 E-mail. kwse@kwse.or.kr
www.kwse.or.kr



ISSN 2288-4327



KWSE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대한여성과과학기술인회
소식지 2013 07

07

JULY

Contents

03 /	격려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04 /	인사말 / 회장 신용현
05 /	수상소감 /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12 /	KWSE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18 /	기관소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 /	특별기고 / Zero-based Proposal
22 /	특집기획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4 /	KWSE 수행과제 보고 /
	대전시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사업
26 /	본부소개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나노기반 정보·에너지 사업본부
28 /	KWSE News
32 /	KWSE 행사
35 /	아름다운 나눔
36 /	KWSE 9대 운영위원 소개
38 /	KWSE 분과위원회 활동
39 /	회장단 및 회원동정

발행인
신용현

편집위원장
김형하

편집위원
권경훈, 김신애, 윤혜은,
곽지혜, 안서현, 이승미, 황지수

홍보팀
임주연, 최한나, 한태윤, 이빛나

발행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10호
전화: 042-863-8310-2 팩스: 042-863-8313
E-mail: kwse@kwse.or.kr
홈페이지: www.kwse.or.kr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co.kr

격려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울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과 ICT를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부처로서,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시각에서 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이 선도하는 창의적 과학기술 사회 구현’을 위해 씬 없이 달려온 결과, 이공계 여성박사 배출수가 2004년도 574명(16.4%)에서 2011년 1,069명(21.0%)으로 증가하였고, 대학 이공계열 학과 여성 교수가 2004년 11,261명(19.9%)에서 2011년 15,013명(23.5%)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과의 여성교수 비율은 40.8%에 달합니다.

2014년부터 시행될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지난 10년간의 성과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창의력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 및 채용목표제, 담당관제,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분야 곳곳에서 능력과 역량을 구현하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과 시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유연한 근무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번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올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내외 공동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열리는 ‘BIEN 2013’이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 지원시책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신용현

안녕하세요 신용현입니다.

새해 인사 드린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덧 2013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KWSE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과학기술 단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KWSE는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홈페이지를 개편 하였습니다.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회원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위하여 회원님 들의 최신 정보가 담긴 회원수첩을 제작 중입니다. 또한 우리 회의 지난 20년 역사를 돌아 보는 백서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민병주 의원과 함께 개최한 '과기중심 창조경제시대 출연연구 기관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에는 20여 분 이상의 국회의원과 200분 이상의 청중들이 모여 열띤 토론의 자리를 만들었고 그 후속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KWSE가 과학 기술계의 이슈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시작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 뿐 아니라 과학 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월 과학의 날에는 11분의 회원들이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 인사 드립니다.

올해 KWSE 사업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전시가 후원해주시는 과학탐구교실 운영 사업은 강연 화수와 연구원 탐방 등이 예년보다 두 배로 늘었음에도 회원여러분의 협조 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6월에는 우리 회원들과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워크숍 을 천문연구원에서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도 배우고 과학 교육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성과학기술인 국제공동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KWSE가 명실상부하게 INWES와 APNN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세계적 미래학자인 제롬 글렌 박사 초청 강연회, 자궁정부암 백신 개발자인 쉐러 박사 초청 대중강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KWSE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BIEN2013'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BIEN2013'은 온전하게 회원 여러분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국제 학술대회로, 학술 발표 외에도 리더십, 과학정책 등의 세션과 젊은 여성과학자들을 위한 캠프, 외국인 여학생을 위한 스마트 시스터 프로그램 등도 같이 운영됩니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를 겸한 만큼 보다 풍성하고 알찬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꼭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참석 하셔서 'BIEN2013'을 진정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8월 22일 'BIEN2013'에서 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상소감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장



명지대학교 교수

(사)한국과학기술나눔포럼
상임대표

박영아

과학의 날에 과학기술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 새서울만한 일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추천으로 훈장을 수상하게 되니 감사의 마음으로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70년대에 초중고를 보내면서 과학을 통한 진리탐구의 길로 꿈을 키우게 된 것은 내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신 부모님께서는 물리를 하겠다는 공부 잘하는 딸을 이해는 못하셨지만 끝내 그 뜻을 꺾진 못하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니 물리 학과의 40명 동급생 중 홍일점이었습니다. 물리학이라는 만만치 않은 순수과학 분야 에서는 여성물리학자도, 선배여학생도 적었지만 당당한 자세로 열심히 학창 시절을 보냈고 유학을 가서 박사 취득 후 귀국하기까지는 여자라는 핸디캡이 그렇게 큰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로서의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사회에는 높은 벽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객원교수를 거쳐 정교수 트랙의 교수가 되면서 하나의 벽을 넘었으나 쓰러린 경험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한국물리학회 내에 여성위원회 설치를 주도하고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물리 학계 내에 성차별 문제를 부각하며 아태물리연합(AAPPS)의 초대 여성실무그룹위원장을 맡고 세계여성물리대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과학자의 육성과 주류화라는 시대적 당위성을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정부, 국회 간에 소통의 채널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 스스로 정치에 나설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갑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18대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에 서서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내 인생의 또 다른 행운이었습니다. 아는 것만 큼 보인다고 하듯이 연구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에 교육계, 과학계, 국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熱과 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예산확보와 출연연 및 대학의 연구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였고, 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여 기초연구분야의 획기적 도약과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공계 학부교육의 정상화와 치·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학교육체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바꾸 도록 한 것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이끌어 대학의 지적재산이 산업화되고 대학이 창조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은 새삼 큰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치열했던 의정활동을 내려놓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꿉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의 훈장이 큰 격려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복과 보람이 깃들기 바랍니다.

수상소감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장

한국연구재단 단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성옥

2013년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가슴에 달아주신 훈장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연구원의 정문에는 축하 플래카드가 걸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인사를 받았습니다. 수상소감을 요청받고 막상 글을 쓰려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20대에 처음 만나 연구에 대한 열정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980년대 후반에 친목으로 만나기 시작하여 올해 20주년을 맞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시작된 연구재단에서의 생활과 만남.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고맙고, 보람된 생활과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서 열렬히 그리워 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사랑스러운 만남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족과의 만남, 영화나 춤과 같은 즐거운 취미와의 만남, 신록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 그리고 내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원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의 만남. 이러한 만남들은 '특별히 무엇을 바라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묵묵한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하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만남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몇 년 전에 'DRAGON'을 내 인생의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내가 정의한 'DRAGON'은 Dignity(품위 있는 사람), Respect(존경받는 사람), Ability(능력 있는 사람), Goal(꿈을 이루는 사람), Openness(열린 사람), Network(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DRAGON'이 되기에는 지금의 나는 무척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게는 더욱 많고 새로운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만남을 통해 보다 크고 깊게 생각하며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큰 사랑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지금 내 사무실 창가에는 보라색 잎과 연보라색의 꽃이 함께 어우러진 '사랑초'가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 '사랑초'라 불리고 꽃말은 '당신을 버리지 않음'입니다. '사랑초'는 해님을 따라 꽃과 잎이 움직이고 해가 지면 잎을 완전히 접습니다. 깜빡 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완전히 죽은 듯 시들어 있다가 관심으로 돌보면 다시 생기를 가지고 꽃을 피우곤 합니다. 난 '사랑초'를 보면서 사랑의 큰 힘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항상 힘과 용기를,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장

신라대학교

교수
김기원

지난 4월 19일, 제46회 과학의 날 및 제58회 정보통신의 날에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 기술·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러분께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수상 소감을 전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 이화여대에서 차세대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WISE)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을 때, 이 사업을 모든 것이 수도권보다 열악한 다른 지역에서든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침 2002년 WISE 사업이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그 해부터 부산/경남지역 센터를 맡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사업(WISET) 동남권 신라대학교 사업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무 연구도 없는 부산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무작정 찾아가기도 하고 맨몸으로 부딪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적극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학생들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선생님,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말이면 실험실을 열어 수고해주신 교수님과 연구소의 연구원 선생님, 각종 대회 마다 지도해 주신 지도교사와 지도교수님,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소장이신 이혜숙 교수님, 전국 WISET 사업 단장님들과 연구원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여러분들(원미숙 박사님, 민병주 국회의원, 하경자 교수님, 김정선 교수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이공계 여대생들은 전공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시하였는데, 10년간 총 10만명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참여한 여학생의 추적조사 결과 90% 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한 것으로 분석되어 무척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때 수학에 자신감을 잃으면 이공계로 진로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중생 수학탐구발표대회와 다양한 수학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여학생들이 수학에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Girl's Math Day'의 실무책임자로서 여학생 친화적인 소재로 수학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여성수학자를 꿈꾸는 많은 여학생들을 초청해 여성수리과학자와의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수학교사들의 성인지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수학연맹의 첫 여성회장인 잉그리드 도브시 듀크대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번의 수상을 계기로 제가 교육자로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퇴계선생님의 말씀인 敎以學行 備給書冊(교이학행 비급서책: 학문과 행함으로 가르치고, 서책을 갖추 주도록 하라)을 더욱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과학기술 포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명희

문득 오랫동안 정신적인 멘토로서 저를 이끌어 주셨던 지금은 은퇴 하신 대전대학교 대학원 장을 지내셨던 임영희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행주 냄새 풍기지 않게 행동 해라.” 그냥 지나칠 말일 수 있지만 정말 아까는 마음으로 저에게 해 주신 이야기였던 것을 충분히 느꼈었습니다. 여자라고 개인적인 일로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일을 할 때에 프로 정신을 갖고 행동하고 책임지라는 깊은 뜻이 있는 말입니다. 여성 과학자인 저에게는 지금 까지도 살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를 정비하게 하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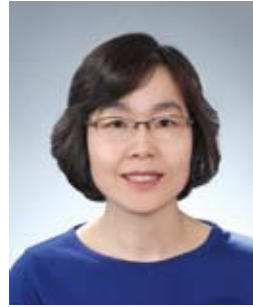
지난 4월 19일 제46회 과학의 날과 제58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이 자리를 함께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 과학인들의 잔치에서 과학기술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 과학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되새겨 보니 제가 한 일에 비해서 과분한 상인 것 같습니다. 새삼 그동안 저와 함께 연구를 수행했던 학생들,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과학계 선배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일깨워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에 이렇게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으로 돌봐야 하는 가족들이 더 많이 생기고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여성과학자라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난관들에 의해 간혹 자신의 일을 대충하려 하고 급기야는 포기하려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약 20년간 운이 좋게도 그러한 난관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마인드와 때론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 잘 지나갈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면들을 존중하여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위에 언급한 분들과 가족들이 있었기에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여성과학자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특강을 부탁받았습니다. 특별히 여성과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 지나온 시간을 더듬어 보니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Science를 대하는 자세와 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니, 첫째, 비록 전공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심을 두고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연구를 설계하자. 둘째, 혼자서는 부족하지만 함께라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다. 셋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연구하고 결과는 공정하게 배분한다. 넷째, 도와줄 수 있다는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자. 다섯째, 나의 직업은 연구원이므로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직접 연구하자. 이러한 자세와 방식이 사실 위에 언급했던 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기본 배경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과학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밝히는 것 외에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살아가는 과학자가 되라.” 후배 과학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과학자로서 중반의 길까지 들어선 것 같고 또 온 만큼 가야 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스로를 과학자라고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온 것 같습니다. 해 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실천하고 싶은 것은 선배 과학자들이 이끌어주고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제는 후배 과학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행주 냄새 풍기지 않게 행동해라” 하신 선배 멘토께서 주신 지침을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변함없는 여성과학자로 남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상소감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대통령 표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배애님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대통령 표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지환

제가 과학자로서의 길을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화학의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 나가는 것이 재미있었고, 잘 안되던 반응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했을 때 무한한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BI-IT 융합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감격스러운 한편, 과학자로서의 특히 여성 과학자의 하나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종선 작가님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을 수상하기까지의 연구 과정들도 저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약개발 연구를 위한 길에는 여러 분야의 융합 연구가 필수적이며 수많은 동료 연구자들과 나를 믿고 따라주는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고,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도 그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해 준 동료 연구자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미미한 성과일 뿐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계에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인생은 총량(總量)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나와 경쟁하는 세계적인 연구수준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신념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또한 신념이 없다면 어려움을 극복해야하는 당위성을 스스로 잃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연구 분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이십년만 연구한다면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최고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수상소식을 접하였을 때 진심으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책임감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내 박사라는 주변의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국과학자”가 되자는 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과학기술로서 애국하는 것은 결코 성직순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 연구자로서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과학자들이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경쟁한다면 세계 최고의 여성연구자가 탄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 이공계 여성과학인들께 많은 힘이 되길 바라며,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상소감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설아

올해 1월 초,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 2013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에 추천을 수락할 수 있느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아공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해 왔고 작년에는 KISTI 멘토링팀의 대표로서 펠로우 멘토를 맡기도 했지만, 과연 상을 받을 자격이 될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안을 받고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 여성과학기술인을 대표하여 추천을 받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을 듯하여 추천을 수락하였습니다.

막상 포상 추천을 수락하고 나니, 취업지원서 쓸 때와 비슷한 수준의 자료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출 마감 전 주말 내내 개인경력 자료를 작성하면서,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해 온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박사 재학 중에 결혼하여 큰딸을 낳고, 학위 후 대전에 와서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달인 4월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로부터 직접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자기 분야에서 쟁쟁하게 업적을 쌓으신 과학기술인들께서 기쁘게 수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연구와 교육 및 과학기술 진흥에 매진하시는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 또 함께 축하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인으로서 학문하는 즐거움을 기억하게 해 주신 은사님들과 수많은 세월 속에 과학기술 진흥에 애써 온 국내외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의 내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연구실에서 작은 땀방울을 흘려 봅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와 저와의 인연은 매우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화학연구원에 재직 중이었던 오세화 초대, 2대 회장님께서 한국의 여성과학자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고, 나아가 과학 인력의 저변확대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정보와 지식 교류를 통한 연구 업무의 협조를 목적으로 KWSE를 설립하셨던 것입니다. 사회 초년병이었던 저에게 오세화 박사님과 같은 선배 여성과학자들은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로 느껴졌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 경이롭고 존경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회고해 보아도 1993년에 한국의 여성과학자들을 위해 이와 같은 이념과 의지를 갖추고 KWSE라는 단체를 창립했다는 것을 과히 대단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시는 박사님께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시고 주위에 계신 다른 선배 여성과학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었으니 아마도 저에게는 좀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KWSE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KWSE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원미숙 7대 회장님께서 운영이사로 추천하셔서 시작하게 되어 8대 회장님이신 민병주 위원님, 현재 회장님이신 신용현 회장님을 모시고 이사로서 KWSE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어느 단체에서도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정과 격려가 넘쳐나는 KWSE와 인연을 맺고 역할을 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 배울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저에게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KWSE에 감사드립니다.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장관 표창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미정

수상소감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장관 표창



경상대학교
교수
서의훈

2013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장관 표창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곽영실

먼저 과학기술유공자 수상 후보로 추천을 해주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신용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천 소식을 듣고 우선 놀랐고 무척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상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되어 송구한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8년 전 하경자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KWSE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서의 삶에 의미도 부여하게 되고 책임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서대학교의 신혜자 교수님과 김정신 교수님이 하셨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맡아 하면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애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2009년 KWSE 부산경남지부 회장과 2010년 KWSE 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당시 민병주 회장님과 함께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킹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선후배 여성과학기술인들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 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분에 넘치는 수상을 하면서, 지방 대학의 여학생들이 지방과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 서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상 후보로 추천해주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의미 깊고 영광스러운 상이었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업적으로 더 큰 상을 수상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지면으로 수상소감을 말씀드리게 되어 그저 쑥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복이 많아 한국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UST 우수교원상,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상 등 뜻 깊은 상들을 수상했지만, 특히 이번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수상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은 그동안의 저를 실로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깊은 상이었습니다. 정규직 여성연구원이 몇 안 되는 시절에 입사하여 지내온 6여년 세월, 여성으로서 불평등이나 주변으로 부터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특유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동안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던 저를 되돌아봅니다. 연구에는 섬세함과 꼼꼼함을, 사업에는 조용한 추진력을, 인력양성에는 엄마와 같은 포근함을, 원내외 조직 활동에는 친화력을, 그리고 분야대외홍보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감을 느낍니다.

2여 년 전 맺은 KWSE와의 인연은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한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의 삶에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선후배 여성과학기술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응원의 마음들은 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고 기관내외활동에 있어서는 큰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이, 더 열심히 그리고 '나' 보다는 '우리를 더 생각하는 연구자가 되리라 다짐해 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비록 저 개인에게 주어 졌지만 젊은 후배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사기진작 내지는 조그마한 격려라도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저 스스로에게 주던 메시지를 이 기회를 통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면의 장벽을 뛰어넘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에 뛰어들라!" 감사합니다.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BIEN 2013

- **일자:** 2013. 8. 22 (목) ~ 24일 (토)
 - **장소:** 서울 셰라톤 그랜드 워커히
 - **주요일정**
- 사전등록 마감일: 2013년 7월 31일 (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BIEN2013이 서울 셰라톤 그랜드 워커히에서 2013년 8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개최된다.

‘여성이 만드는 과학기술과 미래, KW-Leadership SE-Future (Korean Woman’s Leadership in Science & Engineering and Future)’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창립 20주년 기념 세션과 여성과학기술인 역할 및 양성을 위한 리더십 그리고 여성 정책과 교육 세션이 진행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Bio Technology (BT), Information Technology (IT), Environment/Energy Technology (EET), Nano Technology (NT), Space Technology/Engineering (ST), Convergence Technology (CT), Basic Science (Ba)를 분과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최근 연구동향을 듣고,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말레이시아 관광장관 YB Dato’ Sri Dr Ng Yen Yen의 ‘Science and Empowerment of Women: The New World Order’, 월트 디즈니사의 Gene S. Lee 박사의 ‘Animated Films: The Blending of Art with Science’, (전) NSF 부총재, 백악관 부국장인 Kathie L. Olsen의 ‘Success in Science: Wisdom for Winning’, 삼성 SDI 연구소 김유미 전무의 ‘Women Engineers in Industry’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초청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BIEN은 세계 최초로 시도된 여성과학기술인 중심 국제학술대회로 2003년도에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30여개국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1회 대회가 열렸고, 2009년도 2회 대회가 부산에서는 24개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올해 KWSE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BIEN2013도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IEN2003



BIEN2009



●BIEN2013 프로그램

	08. 21	08. 22			08. 23			08. 24	
Morning		Scientific Session (IT)	Special Session (I)	2013 KWSE/ APNN Young Woman Scientist Camp	Scientific Session (EET)	Scientific Session (BT)	Special Session (II)	Scientific Session (NT)	Scientific Session (Ba)
					Poster Session II			Closing	
Afternoon	2013 KWSE/ APNN Young Woman Scientist Camp	Lunch			Plenary Session II				Optional Tour
		Opening Ceremony							
		Plenary Session			Scientific Session (ST)	Scientific Session (CT)	Special Session (III)	Smart Sister Program	
								KWSE Branch Workshop	
Poster Session I			Poster Session III						
Evening		Welcome Reception			Banquet				

●BIEN2013 등록정보

BIEN2013의 온라인 등록이 www.bien.or.kr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등록비는 회원인 경우 280,000원, 비회원 330,000원, 학생 및 동반자는 150,000원이다.
공동저자에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남성도 참여와 발표가 가능하다.

●문의처

Tel : 02-457-4982
E-mail : secretariat@bien.or.kr
공식홈페이지 : www.bien.or.kr

엠블럼 소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올해 스무살이 되었다. 1993년 8월 16일 130명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참여한 발기인 대회 후 1993년 9월 20일 230명의 창립회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과학기술인단체 KWSE가 발족하였고, 2013년 현재 전국의 여성과학기술인 1,3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전문 여성단체로 발전하였다. KWSE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엠블럼을 회원 여러분께 소개한다. 



KWSE 20주년 엠블럼의 개념

1. 색: 파란색은 '과학'을, 녹색은 '화합'을, 주황색은 '여성'을 상징한다.
2. 모양: 백조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숫자 20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형상이다. 백조의 날개 부분은 여성과학기술인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활동 역량을 상징한다.

Smart Sister Program 개최

KWSE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한 외국인 여성과학기술자를 위한 구심점 역할과 함께 주한 외국인 여성과학기술자와 국내 여성과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Smart Sister Program 행사를 개최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유학생들과의 첫 번째 만남은 7월 24일 수요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앞으로의 Smart Sister Program 활성화에 대해 참가자들과 논의하고,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토론과 네트워킹을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지속적 교류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만남은 오는 8월 23일 금요일 서울 웨라톤 그랜드 위커힐에서 개최되는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BIEN2013'과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201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Smart Sister Program은 이 두 번의 만남 외에도 여성과학기술인과의 그룹 멘토링, '만남의 날' 간담회, 전문과학기술인 초청강연, 온라인 교류활동, 연구기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2013 KWSE/APNN Young Woman Scientist Camp 개최

KWSE는 아시아지역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글로벌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2013 KWSE/APNN Young Woman Scientist Camp'를 오는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한다. 201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10개국의 젊은 여성과학도를 포함, 국내체류 아시아 여성과학도와 한국인 차세대여성과학도 약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3 KWSE/APNN Young Woman Scientist Camp'는 주제별 전문과학기술인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여성과학기술인과의 멘토링,

학술교류, 그룹 토의, 포스터 발표, 연구기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국제여성과학기술인대회 BIEN2013에 참여하여 과학에 대한 지식과 정보, 리더십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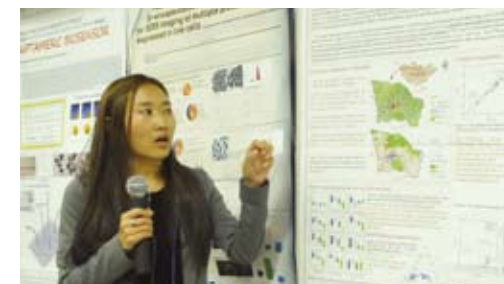
본 행사를 통한 한국 여성과학기술인과 국외 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네트워킹은 연구 역량 강화 및 여성과학기술인재 활용도 증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룹 토의



연구기관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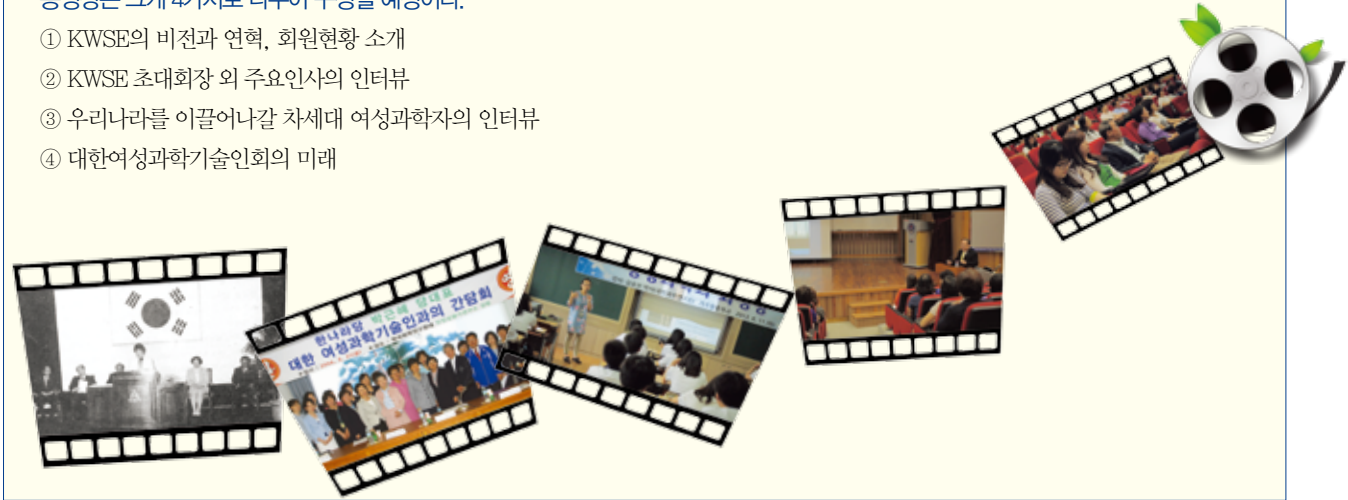
2012 International Young Woman Scientist Camp

동영상 제작

KWSE는 지난 20년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하여 KWSE 20주년 기념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동영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구성될 예정이다.

- ① KWSE의 비전과 연혁, 회원현황 소개
- ② KWSE 초대회장 외 주요인사의 인터뷰
- ③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여성과학자의 인터뷰
- ④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미래



회원수첩 발간

KWSE는 회원들간의 네트워킹과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1994년, 1998년, 2005년, 2009년 4차에 걸쳐 회원수첩을 제작 · 배포하였다. 2013년 KWSE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수첩 제작을 추진 중이다. 

회원 수첩 표지



1998년 수첩

2005년 수첩

2009년 수첩

2013년 수첩

KWSE 20주년 기념 백서 발간

KWSE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기념 백서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이번 백서는 KWSE의 설립을 준비하던 199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활동을 담을 예정으로 그간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도별 주요활동 및 성과, 자랑스럽고 당당한 여성과학기술인의 모습, 해외에서 활동 중인 여성과학자 소개, KWSE의 비전 등이 포함된다. 백서는 KWSE의 20년의 역사를 주요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으며, 창립준비와 이후 운영과정,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복지 향상, 과학기술문화 확산, 국내외 네트워킹 활성화 등 KWSE 주요업적 외에도 간담회, 회의, 워크숍 등에 관한 자료도 수록할 예정이다. 기념 백서는 인쇄물과 e-book으로 제작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KWSE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식지 발간

KWSE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주년 기념호 소식지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20주년 기념호 소식지는 그동안 발간되었던 KWSE 소식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그간의 격려사를 통해 20주년을 기념하고 KWSE의 여러 활동을 포함한 20년 동안 주요 발자취를 모아 그동안 KWSE의 발전 모습을 수록할 예정이다. 또한, 9대 임원의 임기 마지막 소식지로 2년간의 활동 및 9대 홍보편집위원회의 후기를 담을 예정이다. 



KWSE 소식지 표지

국민행복을 책임지는
측정표준 대표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제1항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는 근거에 따라 1975년 설립되었습니다. KRISS는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행복 추구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연구기관, 바로 KRISS입니다.

● 국민행복 추구를 위한 연구 개발 수행

KRISS는 '표준이 올라가면 생활이 즐거워집니다!(Better Standards, Better Life!)'라는 철학으로 연구개발에 임해 왔으며, 특히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을 이끌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즘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보건 의료, 환경, 식품, 안전 분야 등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복합촉각 마우스 개발, 24시간 범죄예방이 가능한 음원위치 추적 카메라 개발, 화장품 유해원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인증표준물질 개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기에 대한 측정표준 연구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관련분야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복합촉각 마우스 개발



화장품 인증표준물질 개발

● 연구 성과의 가치 극대화를 통해 산업체와 상생하는 기관

KRISS는 연구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산업체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국내 산업계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BOC(Blue Ocean Creation Center) 센터를 새로이 신설하여 KRISS가 지닌 연구개발성과를 전략적으로 재가공합니다. 또한 KRISS는 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산업체 측정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측정 전문가 아카데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측정클럽', KRISS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의 연구기술적 문제를 직접 지원해 주는 '기술휴닥터'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클럽 워크숍 (2013년)



기술휴닥터 성과 전시회 (2012년)

● 출연연 최초, 연구원 내 어린이집 개원

KRISS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기 위해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올해 3월에 개원한 'KRISS 사과나무 어린이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출연연 최초의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서 '실내공기질 인증' 획득, 친환경 소재 구성, 최신식 안전설비 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RISS 직원들은 근무 중 언제라도 연구원 내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KRISS 사과나무 어린이집



KRISS 사과나무 어린이집 내부

● 2025년, KRISS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38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 성장한 KRISS는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5년, KRISS는 세계 최고의 측정표준기관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The Simpler, The Better' 정신으로 일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오늘도 그 꿈에 한발자국 다가섭니다.

특별기고



Zero-based proposal



연세대학교
김은경 교수

2012년 2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세계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구글의 신규 프로젝트사이트 개설이었다. 프로젝트명 ‘Solve for X’의 사이트(www.wesolveforx.com)는 큰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재단에서는 199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술, 오락, 디자인에 관련된 강연회와 기타 다른 강연회의 동영상 자료나 퍼포먼스를 웹사이트(www.ted.com/talks)에 올려놓는다. 초대되는 강연자들은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노벨상 수상자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실제 TED 컨퍼런스에 참가하려면 6천 달러의 참가비를 내야하지만 인터넷으로는 무료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Solve for X’ 사이트에서는 과학기술에 집중한다. 수십억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대담한 제안들이라서 공상과학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미치광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 아이디어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기술적인 돌파구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Solve for X가 관심을 끈 것은 ‘X PRIZE’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X PRIZE는 한 분야 전문가들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해야만 풀리는 분야에 주는 상이며 전 세계 major thinker들이 신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 완성의 속도를 높이자는 데 취지가 있다. 수상 분야는 교육, 에너지/환경, 탐사, 생명과학, 글로벌 개발 등 다양하다.

창조 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고 창의적인 융합 연구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라져야 한다.

Astro Teller는 “어떤 것을 10% 향상시키려는 것보다는 10배 향상시키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고 하였다 <http://www.wired.com/opinion/2013/02/moonshots-matter-heres-how-to-make-them-happen/>. 사실, 10%를 향상시키려면 기존에 있는 방법과 가정 위에서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벌써 상당 시간동안 그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하면 대부분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10배의 향상된 특성을 얻으려면 zero base에서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경험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진행해야 해답이 나온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확산되고 있고, 그 중 큰 문제를 풀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현에 옮기는 것까지 지원하면서 거대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누구나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술이기도 하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술이기도 하다. 각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창의적 융합과제로서 당연히 이러한 과제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기술들도 포함하고 있다. ‘융합기술로 창조경제’를 떠나가려는 우리의 과제와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 ‘수십억 인류에게 도움을 줄 기술’이라는 수식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하튼 인류에게 도움을 줄 과제에, 창조경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출과 이러한 기술을 함께 해결해 나갈 융합 연구 환경이다.

그동안 국내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는 창의적 과제와 융합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왔다고 본다. BT, IT, NT, ET, EET, Ba의 6T로 영역을 구분하고 연구비를 부처별로 나누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NIBT, IBET 등 기술간 융합을 제안하면서 몇 년 또 지내왔다. 대학은 융합연구원, 융합학과를 신설하면서 탑다운 구조의 융합 교육을 구상하고 출연연구원은 융합 부서를 만들어 탑다운 조직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융합연구의 환경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연구자들은 창의적인 생각할 틈이 없이 전보다 더 바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새로운 융합기술이 실용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참을성 있게 연구를 지원하고 문제의 공유와 open-innovation을 통해 국내기술로 국제 시장을 이끄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 대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더 큰 문제와 어려운 문제,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찾아내 주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zero-based thinking의 기회를 가져보아야 할 때이다. 연구자들은 그동안 형식에 의존해 오면서 창의적 사고나 융합적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제한적이었다. 오늘도 많은 연구자들은 계획서 형식에 연구내용을 맞추고 오자, 오기재에 의한 감점을 면하려고 아까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 교내에 미래 융합연구원(ICONS)이 설립되었다. 기존과는 다른, 매우 유연한 형태다. 캠퍼스 간 장벽도, 인문학이나 공학, 자연계, 의학의 학문간 장벽도 넘는 융합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생성된 연구팀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주제나 참여자들에 제한이 없이, 중복성도 허락하면서 zero base에서 시작한 것이다. 질문이 많았다. 구성 조건은 무엇이며, 평가 항목, 자격 등등 그동안 연구과제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었다. 30여개가 넘는 팀이 생겼고 심리와 감성, 철학, 나노, 바이오, 스포츠, 한국학, 예술, 경제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융합되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재미있는 도전적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융합할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대로 토론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이, 기존 틀을 벗어난 디자인으로, 교내 중앙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하였다. 향후 이러한 자율적 융합 연구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해결이 가시화 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히 기업의 분위기는 몇 년 전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발굴이 가시화 되는 것 같다. 몇몇 대기업에서 일부 연구자들 대상으로 기업의 현 사업범위를 넘는 혁신적 기술제안서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기업에서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대비에 기여하기 위해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4개 기초 과학 분야, 소재기술 육성,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3대 미래기술 분야에 집중한다고 한다. 기초과학 연구를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하는데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 지원’을 하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독창적 소재기술 발굴과 ICT 융합형 신산업 창출에 집중한다고 한다. 연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고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zero base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보다 위험성이 크면서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집중할 것이란 도전적인 과제들이 탄생될 것 같다.

이러한 일련의 동향으로 보아 이제 연구자들이 zero-based proposal로 과제를 제안할 기회가 생길 것 같다. 글자 크기나 표 형식 등 연구제안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목표에 대한 수치적 사양, 연구비 규모, 참여연구원의 자격, 3책 5공, RFP 등을 고민할 필요 없이 창의성에 도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팀워크로 연구할 기회이다. 위험성이 크면서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집중하는 zero-based proposal에서는 실패 확률도 크다. 80-90%가 실패하더라도 이러한 도전적 과제는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0-20%의 실현가능한 기술이 실용화될 때 10%의 향상이 아니라 10배의 향상, 혹은 세상에 없던 기술이 새로 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결과가 가시화되면 실용화를 위한 다음 과정과 제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팀워크의 과제에서는 기초연구와 실용화 사이에 있는, 일명 죽음의 계곡이나 악몽이라는 간극을 완전한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zero-based proposal을 작성할 기회도 가져보고 평가도 해 보며, 선정된 과제의 연구결과를 함께 즐겁게 나눌 기회를 기대해 본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Open World-class Institute, KBSI
'세계 일류의 열린 기초연구 인프라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이하 기초(연))은 1988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연구장비들과 전문 분석능력을 확보하고 대학·기업체·민간 및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위한 분석지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국내 기초과학 발전을 견인해왔다. 기초(연)은 '세계 일류의 열린 기초연구 인프라기관(Open World-class Institute, KBSI)'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대덕·오창 본원과 10개 지역센터에 걸친 전국적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여 전국의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체계화된 분석지원

기초(연)은 범용적 단순 지원부터 여러 첨단연구장비를 융합하여 활용하는 고도의 분석기술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분석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한해 516종 1,700억 원 규모의 장비를 활용하여 약 5,500명에 대해 약 13만개의 시료분석이 이루어졌다. 서울대 현택환 교수팀과 '무독성 나노입자를 활용한 고해상도 광학 영상기술 개발'을 2013년 네이처 머티리얼지에 발표한 사례는 5년여에 걸친 공동연구로 이뤄낸 성과였다.

첨단 대형연구장비

기초(연)의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 '3T 휴먼 MRI' 등의 첨단 대형장비들은 개방형 지원체제로, 연구장비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과 지원, 새로운 분석법 개발로 높은 신뢰성을 가진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기초(연)이 보유한 25년간의 분석기술 노하우와 대형연구장비의 결합은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초고전압투과 전자현미경(HVEM)



고분해능 이차이온 질량분석기(HR-SIMS)

우리나라 여성과학자의 롤 모델, 기초(연) 정광화 원장 Interview

자신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지 말고,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에 기여해야



Q 최초의 여성 유치과학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최초의 여성 기관장 등 여성과학자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 소감과 함께 후배 여성과학자에게 조언을 들려주십시오.

최초의 여성 유치과학자, 출연연 최초의 여성 기관장 등의 경력들이 특별히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단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여성과학자로서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가 제게 주어진 것에 대해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저를 롤 모델로 평가해준다면 어깨가 무겁지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KWSE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강력히 권합니다. 최근의 연구는 융합화되고 대형화되어 인맥을 널리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육아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이나 가사 일을 공동 분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 기초(연)의 원장 취임 첫해인데, 향후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취임 후 '세계 일류의 열린 기초연구 인프라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융합연구를 추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맞춰 첨단 대형연구장비의 구축, 기초과학 연구지원과 공동연구, 분석인력 양성 등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향후 분석장비 개발과 분석지원이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할 계획이며, 이러한 비전은 정부의 창조 패러다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Q '창조경제' 또는 '창조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 또는 시각은 무엇입니까?

'창조경제'는 과학과 산업, 문화를 융합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새로 만들으로써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우주선을 개발하고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우주 관광여행사를 설립해 수익 원짜리 우주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이 분석지원을 통해 국민 먹거리, 환경, 건강을 지켜주며 분석과학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 연구장비 개발분야 벤처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가고, 연구장비 전문인력을 양성해 연구장비 전문가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등은 국민의 창의성에 투자하려는 창조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분석장비 개발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15T FT-ICR)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 (900MHz NMR)

2005년 이후 정부예산을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와 시설들로 NTIS에 등록된 통계를 살펴보면 총 6조1,743억 원중 약 60%가 외산장비로, 분석장비의 국내개발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기초(연)은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펄토초 킬라 분광기, 초정밀 열영상현미경, ECR이온원을 이용한 중소형가속기 등 분석장비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기초(연)은 새로운 분석장비산업 창출을 위한 벤처 생태계로 발전할 계획이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 관리와 인력양성

기초(연) 산하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정부예산으로 구축된 모든 연구장비와 시설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한다. 2008년에는 충남대와 공동으로 '분석과학기술대학원(GRAST)'을 설립해, 노벨상에 도전하는 분석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연구장비 이용자 및 운영전문가 교육,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등 다양한 교육훈련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대전광역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운영사업

● 과학문화 확산에 힘쓰는 KWSE

KWSE는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2004년부터 9년째 다양한 첨단과학 분야를 소개하여 과학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자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과학의 재미를 전파하는 KWSE의 중요한 과학문화 확산사업으로 자라났으며, 여성과학자들이 배움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강연함으로써 엄마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지금까지 강연을 들은 학생 수는 42,000명이다.

● 2012년도 사업성과

지난해에는 KWSE 회원인 48명의 여성과학기술인이 대전지역의 79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고 강연을 들은 학생 수는 8,000명이 넘었다.



●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탐방 프로그램 운영

연구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체험 가능한 학습'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2011년도를 시작으로 운영했던 연구원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2년도에는 과학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학교의 학생들에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워크숍 개최

강사 및 과학교사간의 교류를 통해 과학탐구교실사업의 개선사항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 3회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 강연을 할 때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강연 내용 구성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 우수소감문 및 우수지도자상 시상

과학탐구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연에서 배우고 느낀 점에 관한 소감문 쓰기를 통해 과학에 대해 돌아볼 수 있도록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우수소감문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초등, 중고등 부문의 대상 각 1명씩을 포함, 총 18명의 학생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2012년도에는 상의 급을 높여서 대전광역시장상을 2명에게 수여하였고 우수소감문을 많이 배출한 학교의 과학교사를 선정하여 우수지도자상도 수여하였다.



● 2013년도 추진계획

대전시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과학탐구교실의 강연 수요를 충족시키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2013년도 예산을 증액 지원하였다. 이로써 올해에는 강연 및 연구원탐방 참여 학교를 확대하여 총 116개 학교를 선정하여 4월부터 과학강연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6개 학교의 연구원 탐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학교수업만으로는 배우기 힘든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과학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 2013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사업 워크숍 개최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 후원으로 지난 6월 10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13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사업에 참여한 강사들과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을 모시고 효과적인 과학특강 방향을 모색하고,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 박필호 한국천문연구원장, 초·중·고등학교 과학담당교사, 과학탐구교실 강연자를 비롯한 대전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염홍철 시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다양성과 관용이 증시되는 창조경제시대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배려가 강조된다고 전하며, 청소년들이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천문연구원을 견학하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와 천문학'이라는 주제로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전원장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과학탐구교실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과 과학교육현장의 애로사항에 관한 토론회 진행되었다. 또한 그동안 활발하게 과학 강연에 참여한 강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에 참석한 과학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2013 과학탐구교실 강연을 신청하지 못한 7개교에 대해 강연을 추가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1. 사업본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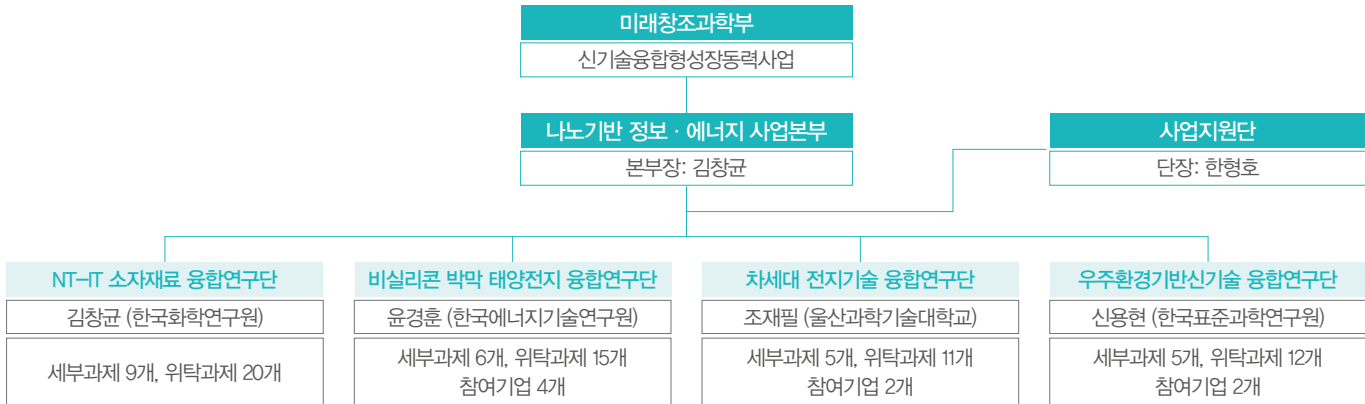
세계는 지금 융합에 의한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새로운 기술의 융합(Convergence)과 확산(Divergence)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새로운 시장의 선점과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형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한다는 목표아래 국가주도로 2009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년간 총 3,160억원(정부 2,835억원, 민간 32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업의 연구 분야별 컨트롤 타워로서 4개의 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나노기반 정보·에너지 사업본부(본부장: 김창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이다. 나노기반 정보·에너지 사업본부는 나노를 기반으로 한 정보·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NT-IT 소재재료 융합연구단(단장: 김창균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비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융합연구단(단장: 윤경훈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지기술 융합연구단(단장: 조재필 교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우주환경기반 신기술 융합연구단(단장: 신용현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연구단과, 이 4개 연구단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사업지원단(단장: 한형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4개 연구단에 총 2,528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25개 세부과제 및 57개 위탁과제를 수행하고 특허 출원 533건(국내 425, 국외 108) 및 등록 66건(국내 65, 국외 1), 국내·외 SCI논문 발표 827편, 기술이전 8건(기술료 36억원), 석·박사 인력양성 238명, 미취업자 채용 132명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융합연구를 위하여 세부연구과제 및 연구단 상호간은 물론 사업본부 차원의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협력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원단은 연구비 관리, 연구과제 관리, 평가 지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 연구단 별 추진현황

가. NT-IT 소재재료 융합연구단

미래 정보전자 산업용 고기능, 신기능 나노원천소재 및 정보전자 소재기술 개발을 목표로 소자기능에 최적화된 맞춤형 소재를 설계·합성하여 소자를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단에서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합성 및 응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미 세계 최초로 30인치 크기의 고품위 대면적 그래핀을 합성하고 플렉서블 터치스크린 패널을 제작 하는데 성공했으며, 장시간 분산 안정성을 가진 인쇄전자 공정용 그래핀 잉크를 제조하여 기술이전에 성공하였다(선급기술료 4억 5천만원, 경상기술료 매출 대비 5~2%).



나. 비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융합연구단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기반 1세대 태양전지 소재의 공급 부족과 가격경쟁력의 열세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저가 고효율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 전지 원천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연구단에서는 CIGS 박막으로 대표되는 화합물 박막, 유기물 박막, 염료감응형 소재, 투명전도막 소재기술 및 이들의 신뢰성 평가기술을 융합하여 태양광 기술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원천소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진공 직접 용액 코팅 방식을 이용한 CuInSe₂ 박막 제조, 고효율 유기염료 및 염료맞춤형 다기능성 공وح박체의 개발 등을 통한 태양전지 고효율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그래핀 전극을 저비용으로 손쉽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백금 상대전극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조기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차세대 전지기술 융합연구단

특수 고기능 이차전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플렉서블 고체형 필름전지 개발을 목표로 나노구조 전지 원천소재와 접을 수 있고 손상 시에도 안전한 대면적전지, 인쇄삽입형전지 등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 가능한 플렉서블 필름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리튬이차전지용 고안전성 양극 활물질 및 고용량 음극 활물질 대량 합성기술을 개발하여 27억원 규모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였으며, 리튬이차전지의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 기술을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에 적용 하면 1분내 완전충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케이블(전선) 형태의 리튬이온 이차전지 구조를 개발하여 전자 기기에 적용 시 외부에서 독립된 전원 공급이 가능하므로 전자기기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 우주환경기반 신기술 융합연구단

우주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초고진공, 고에너지, 초고온 융복합 환경을 발생 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신소재 및 산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단이 출범한 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미 고진공 플라즈마 정밀측정 제어기술을 개발하여 2건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였으며, 진공 플라즈마 기술과 레비테이션 기술을 융합하여 고순도 나노입자를 대량 합성하고 기능화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하여 불순물이 없는 환경에서 신물질을 합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 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근영 선임연구원

여성연구원 소개

안녕하세요. 차세대 전지기술 융합연구단 4세부 과제 (통합형 플렉서블 필름전지 시스템 개발)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강근영 입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저변확대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이며 약자인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더불어 지속적이며, 점차적으로 동반성장하여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강근영 연구원은 2003년부터 (주)카보닉스(現 포스코켄텍)의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리튬이차전지의 소재 및 전원모듈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기 중심 창조경제 시대 출연연구기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일자:** 2013년 4월 17일
-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

민병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KWSE가 주관한 '과기중심 창조경제 시대 출연연구기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가 4월 17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의 공동후원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이재영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20여명의 국회의원과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 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장호남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시중 전 과기처 장관 및 출연연구기관장 등 많은 외빈이 참석하였고 출연연 연구원들과 우리 회 회원을 포함,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송중국 과학기술정책연구 원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현재 우리

나라의 지속적 저성장, 창업활력의 저하, 글로벌 이슈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 등을 이야기하며 창조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출연연의 운영,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start-up business regulation free zone으로 지정하여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발표한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및 출연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의 역할, 국민소득 및 출연연 숫자 변화 추이 등을 이야기하며 출연연 현황과 시대적 요구를 보여주었다. 공공 인프라 및 국가 전략 분야 연구수행과 지속가능 창조경제를 위한 지원자, 국민행복을 위한 성장엔진 등이 바람직한 출연연의 역할이라고 당부 하였다. 묶음예산 확대, 기관평가 제도 개선, 출연연 기관장 선임 시스템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제외 등을 제안하며 출연연 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민경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대표를 중심으로 다음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 사진 좌측부터

김성진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과장 / 정광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 / 김유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송중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 민경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대표 /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

오영제 (사)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 이석봉 대덕넷 대표이사 / 백일섭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 팀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서 과학기술 주축인 출연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을 위한 과학외교의 활성화, 중소기업지원 및 발전, 비정규직 문제, 연구환경 조성, 정년 환원 및 출연연 평가방식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민병주 의원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창조경제시대에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연구 환경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 하였다. 



참석 국회의원

강길부	강은희	김명연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박병석	서상기	송영근	신경림	신의진	안종범
안홍준	이만우	이에리사	이재영	이종훈	이주영
이한성	정갑윤	조명철	주영순	최봉홍	홍지만

* 가나다순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촉진을 위한 민병주 의원 간담회



- **일자:** 2013년 3월 8일
- **장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노폴리스룸

KWSE는 3월 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촉진을 위해 민병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민병주 의원과 신용현 회장, 부하령, 한성욱 부회장을 포함하여 KWSE 임원 및 운영위원 총 11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민병주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충을 위해 KWSE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러 박사 초청 자궁경부암백신 강연회



- **일자:** 2013년 7월 3일
- **장소:**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KWSE는 지난 7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행동하는 여성'과 공동 주최로 John Schiller 박사 초청 자궁경부암백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개발한 Human papillomavirus (HPV) 연구의 권위자 John Schiller 박사(미국립보건원, 국립암센터)는 이날 강연에서 HPV가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여러 암의 원인이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HPV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Schiller 박사는 또한 최근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HPV 백신의 부작용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은 'coincidence vs causality' (우연 대비 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엇보다 과학자들이 일반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강연을 계기로 KWSE는 국민적 관심사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만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여 교육의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세계 일류의 열린 기초연구 인프라기관

Open World-class Institute,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미형연구장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기업체·정부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지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05-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9-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Tel. 042) 665-3500 Fax. 042) 665-3400

제3회 Asia & Pacific Nation Network Meeting 안내



제1회 APNN Meeting 참가자들 (2011년 7월 호주 애들레이드)



제2회 APNN Meeting 참가자들 (2012년 6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일자:** 2013년 9월 14일 (토)
- **장소:** Taipei, Taiwan
- **주최:** KWSE, TWIST

Asia & Pacific Nation Network(APNN)은 세계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Women Engineers and Scientists; INWES) 내에 지역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KWSE의 주도로 2008년에 제14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ICWES14, 프랑스 릴)에서 첫 준비모임이 열렸고 2009년 부산에서 APNN Meeting 개최를 위한 Workshop이 개최되었다. KWSE는 APNN Meeting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인적지원과 재정지원을 통하여 2011년 제15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ICWES15,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제1회 APNN Meeting을 성공적으로 주최하였다. 이런 성과들을 INWES 회원들에게 인정받아 KWSE는 APNN 초대 회장국으로 선출되었고 2011년부터 3년의 임기를 수행중이다.

제3회 APNN Meeting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2013년 9월 14일에 개최되며, 본 행사는 대만의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인 TWIST(The Society of Taiwan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와 KWSE의 공동주최로 2013 IConWiST(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2013. 09. 15~17)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TWIST는 지난 2011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제1회 APNN Meeting에 참가한 대만의 여성과학기술인 대표가 KWSE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한 대만의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이다.

이번 Meeting에서는 제2회 APNN Meeting(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결정한 대로 국가별 대표의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국가 정책 또는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제4회 APNN Meeting 개최지와 차기 회장국을 선정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www.2013iconwist.com.tw

2013 Regional Conference of the INWES 안내



- **일자:** 2013년 11월 19일 (화) ~ 21일 (목)
- **장소:** Nairobi, Kenya
- **주최:** AWSE, INWES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는 60여 개국 250,000여 명의 여성과학자와 공학자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3년에 한번씩 세계여성과학기술인 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f Women Engineers & Scientists(ICWES)를 개최하고 있다. KWSE는 2005년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3차 ICWES(ICWES13)를 주최한 바 있다.

INWES는 ICWES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Regional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 Regional Conference는 AWSE(African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가 주최하며, 2013년 11월 19일에서 2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와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2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AWSE 홈페이지(www.aawse.org)와 INWES 홈페이지(www.inwe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SE는 2002년부터 INWES 회원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KWSE 6대 회장을 역임한 이공주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현재 INWES 3대 회장으로 2011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ICWES16은 50주년 기념으로 미국 Los Angeles에서 2014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www.aawse.org 문의처: info@aawse.org



www.kriss.re.kr

과학기술의 미래를 측정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표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만들고 있습니다.
KRISS가 만드는 다양한 대한민국의 모습들
정확한 측정과 올바른 표준으로 과학기술이 꿈꾸는 내일을 열어갑니다.

Better Standards, Better Life!

2050

2035

2020

20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아름다운 나눔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 릴레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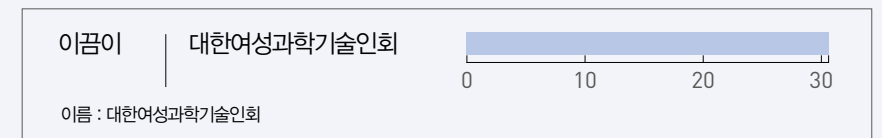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에서 진행하는 ‘100인 기부 릴레이’에 KWSE도 동참하였습니다.

‘100인 기부 릴레이’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는 행사로 우리 회에서는 총 34분이 기부에 참여하여 완주에 성공하였습니다. 2010년 기부 릴레이에 처음 참여한 KWSE는 그 뒤로 매년 참여하여 올해로 4번째로 릴레이를 완주하였습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기꺼이 나눔을 행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주자: 곽지혜, 권경훈, 김경숙, 김신애, 김정선, 김주혜, 김형하, 김혜영, 남길수, 마은숙, 백란, 부하령, 성은정, 신용현, 신윤숙, 안서현, 윤은숙, 윤희은, 이선영, 이승미, 이정숙, 임주연, 장귀숙, 최선미, 최선영, 최한나, 추장희, 한미영, 한선화, 한성옥, 한송희, 한태윤, 황정아, 황지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에도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00인 기부 릴레이 홈페이지상 KWSE 회원 완주 표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 2013년도 상반기 기부금 명단

김유미 • 김은경 • 김혜영 • 백 란 • 부하령 • 신용현 • 오세화 • 이선영
한미영 • 한선화 • 한성옥

KWSE에는 정성어린 마음으로 솔선하여 나눔을 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소중한 분들께 작은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마음과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이 계심을 알려드리며 지면에 짧은 글이나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KWSE를 아끼고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처: 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신한은행 140-008-771007)

본 회에 보여주신 정성은 연말정산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KWSE의 9대 운영위원들을 소개합니다.



KWSE의 9대 운영위원들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활약 중인 KWSE의 9대 운영위원들이 인사드립니다.
'자기소개' 요청에 응하신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자기소개와 함께 실었습니다.

❶ 여성과학기술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❷ KWSE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❸ 후배 여성과학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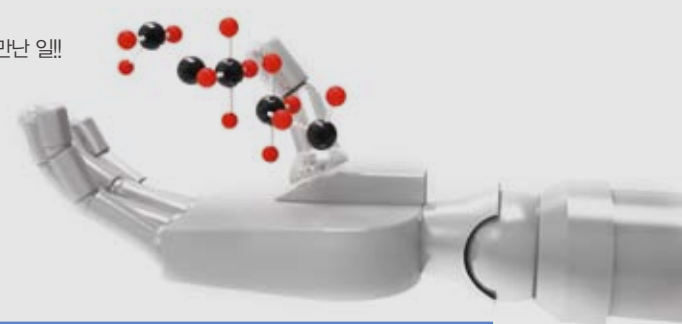
홍보편집위원회



곽지혜 책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공은 화학이고, 2005년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하여 2009년부터 태양에너지연구단에서 화합물 박막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청정·무한한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지구 환경과 인류를 위한 미래 에너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KWSE에서 일 잘하고 COOL & CHIC~한 여성과학기술인 선배님들을 만난 일!!



대외협력위원회



김유진 선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X-ray crystallography를 전공하고 8년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작용제 방어에 대한 연구를 현재 수행중이고 국방산업에 필요한 연구분야를 발굴하는 일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혼자 하는 연구보다는 여러 사람과 일궈낸 결과가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아들의 엄마로서 고군분투하는 여성연구원이지요.

여성과학기술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의약업계나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와는 다른 국방과학분야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인것 같아요. 미개척지에서 뭔가를 일궈낸다는 느낌이랄까요. 현재에도 저에게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장 자부심을 주는 곳입니다.

KWSE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과학탐구교실이라는 대표적인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여성과학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과학마인드를 갖게 하고 이공계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운영위원회



김명희 책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체방어시스템연구센터에서 구조생물학과 생화학으로 암과 감염질환의 병인에 대한 세포 신호전달 분자 기전을 규명하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씩 테니스를 치면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KWSE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여성과학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로서의 역할

후배 여성 과학도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조은위 책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화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암진단 바이오마커 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구원으로서의 일상은 피곤 하지만, 생체의 기본 기작을 연구하는데 흥미를 가지며 시작한 연구를 이제는 저의 아이들에게도 권할 만큼 과학자로서의 삶을 사랑 합니다. 다양한 분야와 만나기 위한 독서를 하고 핸드메이드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KWSE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리더십을 갖는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가사, 자녀교육 등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WSE는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좋은 롤모델이 일반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박정민 선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학부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분야 비정부조직에서 활동하다가 기술정책을 전공하고 싶어서 경제학과에서 바이오분야 기술혁신을 전공하였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연구기획업무를 수행했고 현재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식품정책연구, 연구 기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물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중학문을 융합하였다고 자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둘 다 수박 겉핥기는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양측의 입장에서 연구기획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KWSE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여성의 네트워킹은 소통능력에 있어 또 다른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여성의 리더십과 네트워킹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처럼 여성집단의 소통의 힘이 사회 각계에서 발휘되도록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후배 여성과학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공계 전공자가 경제/경영의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는 않음에도 매력점점의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공을 바꾸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학문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은 본래의 전공을 풍부히 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여성과학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



임선영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저는 부산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여 박사 학위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일본 식품종합연구소와 미국 국립보건원 에서 '오메가 3 지방산과 뇌 기능'에 관하여 7년간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년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유럽 고대사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관심이 많아 요즘 집중 독서 중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남성사회와 비교했을 때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역사가 길지 않아 여성과학기술인 개인의 역량으로 사회에 진출, 성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성조직에 비하면 공공심이 다소 결여되고 가정에서의 비중이 크다보니 가족 중심형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배 여성 과학도에게 해주고 싶은 말
미래를 설계할 때 결혼과 육아 문제에 대해 너무 큰 비중을 두어 자신의 꿈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제교류위원회



- **일자:** 2013년 6월 19일
- **장소:** 대전 KWSE 사무국
- **참석자:** 윤혜은 위원장, 송희은 위원, 최한나
- **회의내용:** 2013 KWSE/APNN Young Woman Scientist Camp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 논의

홍보편집위원회

- **일자:** 2013년 3월 13일
- **장소:** 대전 카이스트
- **참석자:** 김형하 위원장, 박지혜, 권경훈, 김신애, 안서현, 윤혜은, 황지수 위원, 임주연, 최한나, 한태윤
- **회의내용:** 56호 소식지 3차 시안 검토 디자인 및 편집사항 논의

- **일자:** 2013년 4월 24일
- **장소:** 대전 KWSE 사무국
- **참석자:** 김형하 위원장, 박지혜, 권경훈, 김신애, 이승미, 황지수 위원, 임주연, 최한나, 한태윤
- **회의내용:** 56호 소식지 검토 및 개선점 논의 57호 및 20주년 기념호 소식지 기획



- **일자:** 2013년 6월 14일
- **장소:** 대전 KWSE 사무국
- **참석자:** 김형하 위원장, 박지혜, 권경훈, 안서현 위원, 임주연, 최한나, 한태윤, 이빛나
- **회의내용:** 57호 소식지 원고 및 시안 검토 20주년 기념호 소식지 아이디어 제안

이사회 개최



- **2013년 제2회 이사회 개최**
- **일자:** 2013년 3월 13일
- **장소:**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주요 안건:** 2013년도 사업 진행 사항 보고 10대 회장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2013년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캠페인 참여

2013년 제3회 이사회 개최

- **일자:** 2013년 4월 17일
- **장소:** 서울 국회의원회관
- **주요 안건:** BIEN2013 진행사항 보고 10대 회장선거 진행사항 보고 KWSE 회원수첩 진행사항 보고

2013년 제4회 이사회 개최

- **일자:** 2013년 6월 4일
- **장소:** 대전 남도마당
- **주요 안건:** 20주년 기념사업 보고 KWSE 회원수첩 구성 결정 신규회원 인준

회장단 및 회원동정

● 회장단 동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문관 위촉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1. 15)
-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협력사업 평가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2. 28, 06. 12)
- 기초연구사업 개편 간담회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3. 13)
- 연구개발특구 아이디어 콘테스트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3. 15)
- 스마트 IT 융합시스템 연구단 이사회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3. 20)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NET) 임시 이사회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3. 21, 06. 27)
- 대전시 과학기술위원회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3. 28)
- 2013 여성과학기술인연차대회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4. 03)
-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과기/ICT의 역할' 대과연-과총포럼 참석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4. 03)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4. 10)
- 2013 춘계 국회과학기술정책토론회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4. 17)
- 한국국제협력재단 (KOICA) 과학기술 분야 전문위원 위촉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4. 17)
- 미래창조과학부 R&D 자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위촉 및 위원회 참석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4. 17)
- 과학기술인 · 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 참석 (신용현 회장, 한성욱 부회장,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4. 19)
- 연구소기업대표 초청간담회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4. 23)
-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참여단체장 회의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4. 26)
- 초청발표: 수원 차세대 융합연구원,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카이스트 SW 대학원, 산업기술협회, 카이스트 (한선화 부회장, 2013. 05. 03, 04. 30, 06. 11, 17)
- 행정안전부 정부 3.0 진행상황 보고회 참석 (한선화 부회장, 2013. 05. 09)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녹색자원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윤혜은 총무이사, 2013. 05. 09)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워크숍 참석 (신용현 회장, 한선화 부회장, 김형하, 윤혜은 총무이사, 2013. 05. 10)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참석 (한선화 부회장, 2013. 05. 14, 06. 26)
-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차관 방문 (한선화 부회장, 2013. 05. 14)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참석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5. 15, 29, 06. 19, 07. 10, 24)
- KRSS 참조표준 국제심포지움 초청 강연 (한선화 부회장, 2013. 05. 22)
- 글로벌 차세대 여성공공리더 육성 포럼 지정토론 (한선화 부회장, 2013. 05. 23)
- 한중 표준기관장회의 참석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6. 03~08)
- 2013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기자간담회 참석 (신용현 회장, 주성진 총무이사, 2013. 06. 07)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첨단융합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 참석 (신용현 회장, 한선화 부회장, 윤혜은 총무이사, 2013. 06. 10~13)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패널 참석 (신용현 회장, 2013. 06. 12)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 참석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6. 13)
- 기초기술연구회 과학기술협력사업 평가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6. 13)
- 대덕아노폴리스 포럼 참석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6. 13)

- UN 미래포럼회장 방한 특강 사회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6. 21)
- EU FP7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 참석 (김형하 총무이사, 2013. 06. 25~26)

● 회원 동정

- 수상
 - 2013년도 과학기술진흥유공자 (2013. 04. 19)
 - 과학기술훈장 동반장: 박영아 (명지대학교)
 -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김기원 (신라대학교), 한성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과학기술포장: 김명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대통령표창: 배애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지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태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국무총리표창: 안설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장관표창: 한미정 (한국화학연구원), 서의훈 (경상대학교), 광영실 (한국천문연구원)
 - 조명희 (경북대학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10주년 감사패 (2013. 04. 04)
 - 김현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2013. 04. 12)
 - 박영년 (연세대학교): 제46회 유한의학상 우수상 (2013. 04. 15)
 - 민병주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2013. 06. 18)

선임 및 선출

- 고경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취임 (2013. 03. 01)
- 조현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 위촉 (2013. 03. 01)
- 배은희 (전 국회의원):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취임 (2013. 03. 28)
- 김혜영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 취임 (2013. 04. 30)
-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생명복지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2013. 05. 09)

승진

- 권경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운영본부장 (질량분석 연구부장 겸직) 임명 (2013. 05. 01)
- 박순희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식약청 시험분석 센터장 임명 (2013. 05. 06)
- 이미선 (기상청): 3급 부이사관 승진 (2013. 05. 08)
- 원미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소장 임명 (2013. 06. 01)
- 윤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센터 분석연구부장 임명 (2013. 06. 01)

이직

- 강선영 (전 삼성 제일모직 중앙연구소): SK Innovation 대덕 기술원 (2013. 03. 01)
- 조명희 (전 경일대학교): 경북대학교 융복합시스템공학부 (2013. 03. 02)

기타

- 이해경 ((사)한국환경보건복지협회): (사)한국야토피협회에서 명칭 정관 변경 (2012. 12. 21)
- 이흥금 (국지연구소): '북극정책국제심포지엄' 외교통상부와 공동주최 (2013. 03. 18)
- UNESCO-IOC (유네스코-정부간해양학위원회) 전문가회의 참석 (2013. 04. 14~18)
- 이연희 (서울여자대학교): 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과제 평가 회의 참석 (2013. 03. 07)

- 2013년농림수산식품부국가연구개발사업자제평가총괄조정위원회 참석 (2013. 03. 22)
- 2013 세계소재은행학회 연례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2013. 05. 05~09)
- 제7회 연구소재은행 국제심포지엄 및 전시회 개최 (2013. 05. 29)
- 조명희 (경북대학교): 준명장학금 수여 (2013. 03. 23)
- 국가과학기술위원 연임 (2013. 04)
- 김영주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WHO의 PREBIC (Preterm Birth International Collaborative) 미팅 참석 (2013. 04. 20~25)
-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ISO TC249 (전통의학) 4차 총회 참석 및 WG4 (의료기기) 회의 주재 (2013. 05. 20~23)

신규종신회원

- 권진주 (국방과학연구소)
- 김현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노정혜 (서울대학교)
- 박내선 (해양과학기술원)
- 박정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백혜자 (부경대학교)
- 안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안서현 ((주) LG생명과학)
- 오수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이레나 (이화여자대학교)
- 이정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이정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정유진 (국방과학연구소)
- 정윤희 (연세대학교)
- 조명희 (경북대학교)
- 조혜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진 경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황미정 (한국원자력연구원)

신규회원

- 김가영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수진 (국방과학연구소)
- 김순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정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김하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남기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류선영 (한국원자력연구원)
- 박주영 ((주) 모아)
- 방미진 ((사) 과실연)
- 손명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안현주 (충남대학교 분식과학기술대학원)
- 윤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윤하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이은정 (한국기계연구원)
- 이현정 (국민대학교)
- 이현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정소이 (토지주택공사)
- 정주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최지선 (고려대학교)
- 하태열 (한국식품연구원)
- 함선영 (한국천문연구원)
- 황윤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정정합니다.

- 지난 3월호에 소개된 신입회원의 소속을 정정합니다.
- 김남순 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박내선 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